

“철길 부활... 한반도 심장 다시 뚫는다”

■ 환희·기대 부문 문산·금강산역

“단합과 통일의 이정표 향해 힘차게 달려가길”

17일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기념행사가 열린 문산역 행사장은 반세기 이상 끊겼던 철마의 부활에 대한 환희와 기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쭉했다.

행사장은 이날 행사 시작 전부터 취재진과 행사 참석자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헬기소리와 수백 발의 폭죽, 애드벌룬 등이 하늘을 장식했다.

이재정 통일장관은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버스로 오전 10시30분께 문산역에 도착한 권호중 북측 내각 책임참사 등 북측 인사들에게 “오시느라 수고했다”며 손을 맞잡고 환대했다.

이 장관은 기념사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 만큼 참으로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라며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또 열린 철길을 “반영의 통로” “평화의 가로” “통합의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행사장은 특별한 무대구성으로 의미를 더했다. 우선 기념행사가 열린 무대에는 2대의 모형 철마가 등장해 남북 분단의 역사와 함께 이날 열차 시험운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무대 중앙 왼쪽에는 반세기 이상 중단됐던 녹슨 철마를, 오른쪽에는 이 같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이날 부활한 철마를 설치한 것.

그러나 이날 행사 시작 전 남북자 가족 30여 명이 행사장 주변에서 남북자 송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아 역사적인 열차 시험운행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의 상흔이 여전한 모습을 보였다. 동해선 구간인 북측 금강산역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남북 문산역에 비해 다소 조촐하게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북측 박정성 철도성 국장은 “시험열차가 궤도 위로 힘차게 달리듯이 민족단합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역사적인 시험 운행에 나선 경의선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자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 남북 대표단이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가 세계와 연결됐다”

■ 각국 언론들 열차 시험운행 보도

17일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된데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은 “한국이 세계와 연결됐다”며 부산과 아이슬란드간 육로 통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AP와 로이터, 교도, 신화사 등 세계의 주요 통신과 더 타임스,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유력 신문들은 일제히 세계에서 무장병력이 가장 집중된 장소 중 한곳인 비무장지대를 열차가 통과하게 됐다며 “역사적 순간”이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이번 열차 시험운행 구간이 “세계에서 가장 늦게 개통됐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평했다.

외국 언론들은 이번 열차 시험운행 성사가 6·25 전쟁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며 많은 한국인들이 열차 여행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 언론들은 남북간 철로 연결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원칙적으로 합의됐고 2003년에는 물리적으로 실현됐지만 사람을 태운 객차가 군사분계선을 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찾은 안 경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권 모범, 인권·평화 도시로”

“5·18 민주화쟁 시기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훌륭한 모범이 됐으며, 이 정신은 인권·평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광주를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58·사진) 위원장은 “5·18은 세계 역사에 있어 인권 신장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5·18에 대한 자

신의 견해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광주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에 걸맞게 이미 시민들의 의식이 높은 지역”이라며 “지금은 아시아지역 인권 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출범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금은 일정부분 제도의 정비와 인권 차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됐다”며 그동안의 성



과를 높이 평가했다. 인권·평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에 대해 그는 “광주는 지역 사회의 전통과 지역의 인권 감성이 높은 곳이어서 충분한 자리가 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전 국민이 똑같은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학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운영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성곤 의원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탑승기



56년동안 끊어졌던 경의선과 동해선이 17일 남북간 시험운행을 통해 연결됐다. 남북 철도 연결이란 역사적 현장에 남북대표단으로 참가한 열린우리당 김성곤(여수 갑) 의원의 경의선 열차 탑승기를 실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 이후, 위기국면을 맞았던 남북관계를 직접 목도했다는 점에서 그의 탑승기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통일 염원 실은 ‘희망 열차’ 튼튼한 동맥으로 거듭나길

56년만에 분단의 철조망을 끊고 겨레의 꿈인 통일을 안고 달리는 경의선 열차에 탄다는 생각에 16일 밤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온갖 시련과 고비들이 밤새 머리를 스쳤습니다.

17일 아침, 총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지만 문산역으로 향하는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문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역사의 현장인 문산역에는 평화의 봄 기운이 충만했습니다.

최연소 탑승자인 장진구 군과 홍지영 양부터 최고령자인 고 문익환 목사님의 부인인 박용길 여사까지, 여기에 북측 인사들의 열렬 표정도 화사한 봄 날처럼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문산역 광장에서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의 기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탑승객들의 마음은 이미 경의선을 달릴 열차에 가있었습니다.

기념 행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경의선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객차 4량, 발전차 1량 등 6량으로 이뤄졌습니다. 흔히 보았던 보통 열차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한반도 평화를 이룰 열차라는 점에서 정말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11시 30분, 우렁찬 기적

소리와 함께 1951년 이후 56년 동안 끊어졌던 경의선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실은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환호가 나오기도 했고 감격에 겨운 듯 눈을 지긋이 감은 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낮 12시 도라산역에서 통행검사를 거친 뒤 경의선은 남북한계선을 지나 12시 18분 군사분계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열차 안에서는 남북 따로 없이 모든 탑승객들이 박수·환호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북원으로 이념과 냉전으로 끊어졌던 남북의 허리가 다시 연결됐고 한반도의 평화가 결코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윽고 열차는 관문역을 거쳐 오후 1시께 개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려도 1시간이면 도착하는 개성역을 56년이나 걸려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산역과는 달리 개성역에서는 별 다른 환영행사는 없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로 우리를 환영했을 뿐입니다.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술 밤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20여분 동안 선죽교를 둘러본

뒤 남측 일행은 다시 개성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벌써 지나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탑승객들은 아쉬운 마음에 개성역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북측 안내원들과 다시 만나자는 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북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마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이번 경의선 철도 복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직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이고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 이은 희망의 또 다른 걸음입니다. 이제 도로를 잇고, 철도를 연결하고 하늘길을 열고, 바닷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대륙간 횡단철도가 연결된다면 호남의 물자와 인재들도 이 길을 거쳐 넓은 세상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꿈을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개성간 광양 매화나무 열매 맺었다” 희소식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된 가운데 북한 땅에 심어진 광양의 매화나무에서 청록빛 매실이 열리기 시작했다. ‘희소식’이 전해졌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개성공단 식목행사 차원에서 개성공

단 인근 송악산에 심은 매화나무 관리를 위해 지난 14일 시 관계자 8명이 북한 개성을 방문해 5~6년생 105그루의 매화나무에서 잎을 박차고 나온 매실이 목격됐다.

광양시는 개성공단 식목행사를 위

해 진상면 어치마을 황태운(57)씨의 매화나무 105그루를 무료로 기증받아 지난 달 4일 개성 현지를 방문, 식목 행사를 가졌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kwangju.co.kr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고중 공식지정 영어캠프/연수

영어캠프 / 연수

영어캠프

- 참가대상: 초·중생 개인 및 그룹
- 캠프기간: 2007. 7. 20~2007. 8. 31(6주코스)
- 캠프수업기간: 2007년 5월 31일 까지(선착순 조기마감)
- 캠프장소: URC(University of Regina Carmeli)필리핀

최고의 목표를 첫째는 안전, 둘째는 학업능력향상, 셋째는 문화체험이라는 순서를 정하고, 영어능력향상을 배가시키고 동시에, 즐거움속에 영어의 진취적이고 영어적 사고를 배양하며, 캠프기간 후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줄 캠프입니다.

영어연수

- 연수대상: 중학교 이상 성인까지
- 연수기간: 4주, 6주, 8주 과정(일주일 연수 가능) 연수기간은 년중 자유로이 선택
- 연수장소: 홀스테이(미달라 오티가스)

단기간에 집약적인 영어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목표를 학업능력향상으로 정하고,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완전 배제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level에 맞는 철저한 맞춤식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학생의 영어 능력을 신장 시켜 주는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Grammar, Reading, 주제토론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TOEFL, TOEIC, IELTS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며, Reading, Speaking, Writing 분야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원어민과 맞춤형 수업진행으로 효율을 극대화
- 원어민 선생님의 자질 우수
- 프로그램 우수
- 선생님이 방문 수업, 이동시간의 절약 및 안전 보장

참가자 특별 이벤트

캠프 및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전화영어 1개월 무료수강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camp.com

한국고중 회원특별 할인 신청시 특별할인!!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주스 남·녀 의류,신발,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① 호점: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② 호점: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④ 호점: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주 최초 일본 구제 멀티샵

●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희상의 품질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신발,가방,우산,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켄도 프린세스 슈가쿤

도쿄주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